

민머리로 파격 변신 연기파 배우 하정우

'추격자(2008)'의 연쇄살인범,
'황해(2010)'의 조선족,
'베를린(2012)'의 북한 특수요원 등,
워낙 어둡고 강렬한 캐릭터를 많이
맡아왔기에 유머러스한 하정우는
잇고 있었다. 새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에서는 오랜만에 그의 개그
본능이 꿈틀댄다.

글 김겨울 스포츠조선 기자
사진 뉴시스,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



하정우가 머리를 밀었다. 그리고 극중 18살의 배역을 맡았다. 그 배역은 조금 덜 떨어지기도 했다. 거기다 조선시대의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기도 하다. 영화 '베를린', '더 테러 라이브' 등에서 멋진 역을 맡았던 그가 '바보' 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 '바보'는 영웅이 된다. 그것도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다.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가 오는 23일 개봉한다. 하정우는 이 영화에서 탐관오리의 핍박에 가족을 잃고, 군도로 변신해 차세대 수장이 되는 도치 역을 맡았다.

어떤 장르의 영화인가? 오락 영화로 봐주면 좋겠다. '민란의 시대'라는 부연 설명에서 민중들이 자각을 하고 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될 거라 믿었다면 그건 아니다. 무겁고 진중한 영화라기 보다는 표현하는 방식, 편집의 독특함이 배어있는 재미난 영화다.

시사회 때 극 중에서 도치가 '18살'임을 강조하는 말에서 관객들이 뽕뽕 터지더라. 아무래도 가난하고 그러다 보면 가꿀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냐. 사실 극에서는 조운(강동원)이 더 형이지만, 양반집 자제니까 배부르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그런 고운 피부를 가지지 않겠는가.

그래도 도치 캐릭터만의 매력이 있었지 않나. 물개 같지 않나. 눈발에서 일어나서 반짝 눈 뜨고 말이다. 좀 장난스럽고, 유아적인 장난스러운 표정, 개인적으로 귀엽더라. 아이 같은 느낌이었다. 동네 개구쟁이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동심이 느껴지는 캐릭터지 않나. 좀 귀여운 캐릭터다.

하정우는 감독을 겸하고 있다. 전작 '롤러코스터'도 있고, 현재 '허심관매혈기'를 찍고 있지 않나. 감독의 시선에서 함께 작업한 윤 감독의 작업을 어떻게 보는가. 아무래도 준비를 치밀하게 했구나, 이토록 수많은 배우들과 대작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성장을 이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가까이 지내는 친구이자, 학교 후배지만, 윤 감독을 만났을 때 큰 성장에 너지를 느끼게 됐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지를 알고, 배우들에게 내리는 디렉션을 봤을 때 말이다.



감독으로 데뷔한 뒤 아무래도 작품에 임하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나? 일단 감독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하는거야'라면서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의문과 불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젠 그 상황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간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독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게 됐다. 이제는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

감독으로서 고민이 생기는가. 윤감독에게 조언을 구하는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딱딱 정답만 맞추고 살 수 없지 않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멘붕'에 빠지는 순간도 당연히 있다. '허심관매혈기' 역시 7개월 가까이 준비 작업을 했어도, 촬영을 하다 보면 '뇌기능정지'가 오는 현상이 있더라. '롤러코스터'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고가 멈춘 것 같았다. 이런 현상이 한 5번 정도 온다고들 하더라. 생각해보면 전에 같이 작업을 했던 감독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 왜 우왕좌왕하는지. 윤 감독한테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한다.

아까 도치 캐릭터가 귀엽다고 했는데, 실제 하정우의 귀여운 매력이 있을까.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다. 하하. 이번에는 대파까지 야멸차게 먹는 모습이 있으니, 하정우의 먹방이랑게 관객에게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 대파를 먹어버리니.

끝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비법이 있다면. 족욕 및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거기에 저염식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는 편이다. ☺